

데스크 시국



김미은 문화부장

혹시 ‘화난 원숭이’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광산구청에 있다는 ‘화난 원숭이’를 만난 사연은 이렇다.

현재 문화부에서는 젊은 문화기획자 시리즈를 진행 중이다. 창작활동은 활발하지만 판을 짜는 설계자는 부족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영동하고 기발한 상상력으로 똑똑똑따 프로젝트를 만드는 이들을 만나면 재미있다. 어떤 기획자의 말처럼 “이게 문화가 될까 하는 게 문화가 되는” 현장은 유쾌하다.

‘꼬마 상상학교’ 라우기획 김가연 대표(35)와의 인터뷰도 흥미로웠다. 김 대표의 주 활동지는 광주시 광산구. 그녀는 광산구청과 일하는 게 즐겁다고 했다. 좀처럼 듣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지금까지 행정기관과 일한 이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자립 여건이 된다면 다시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뉘즈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동행한 사진부장도 호기심을 나타냈다.

광산구청의 ‘화난 원숭이’

전문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관은 정확히 행정적 지원만하는 게 효과가 높다. 어설피게 알고 좌지우지하는 게 가장 피곤하고 성과도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김 대표는 광산구청과 일하며 기존 공무원 이미지를 깨졌다고 했다.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신이 꾸는 꿈과 상상이 실현되는 게 보였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김 대표는 아마도 ‘화난 원숭이’덕인 것같다 했다.

물벼락 불사하는 원숭이

‘화난 원숭이’는 광산구청 정책 동아리다. 이름은 송인혁씨의 책 ‘화난 원숭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에서 따왔다.

책에는 두 종류의 원숭이가 등장한다. 먼저 개리 하릴 교수 실험에서 유래된 ‘화난 원숭이’. 천장에 매달린 바나나를 발견한 원숭이가 줄을 타고 올라가려하자 실험자는 찬물을 뿌렸다. 원숭이들은 번번히 찬물이 쏟아지자 시도를 멈춘다. 이 때 새 원숭이 한마리가 투입됐다. 그 원숭이가 줄을 타려하자 고참 원숭이가 화를 내며 제지한다. 자기까지 찬물을 뒤집어 써야하기 때문이다. 위축된 심장은 이후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사실은 번갈 수 없고 일본은 역사를 지시하고 결국 직접 찬물 세례를 받은 원숭이는 한마리도 남지 않았지만 이제 어떤 원숭이도 바

나나를 따 먹으려 하지 않았다. 아무도 이윅을 모르면서도 바나나는 따 먹으면 안되는 대상이 되었다. 학습화된 무기력을 설명하는 실험이다.

1952년 미야자키 현 고자마섬. 과학자들은 원숭이들에게 고구마와 밀을 제공했다. 원숭이들은 고구마의 모래를 털어내 먹었지만 밀은 모래를 털기 힘들어 쉽게 먹지 못했다. 이때 18개월짜리 원숭이 이모(Imo)가 들어왔다. 이모는 시냇물에 고구마를 씻어 먹었다. 3개월 후 이모의 친구와 어머니 따라왔다. 5년 후 모든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었고 밀은 물에 던져 넣은 후 가라앉은 모래를 제거해 먹었다. 이후 섬은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늙은 원숭이들은 결코 고구마를 씻어 먹지 않았다.

이 책을 흥미롭게 읽은 직원들이 모임을 꾸렸다. 무기력하게 체제에 순응하지 말자. 새로움을 꿈꾸고 창의적인 발상을 끌어내는 이모 원숭이가 되기 위해 네트워크를 조직했다. 동아리 활동하듯 사람을 만나고, 즐겼다. 부서 곳곳에 흩어진 이들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갔다. ‘화난 원숭이’ 명예회원인 송인혁씨와 물벼락콘서트도 열었다.

조직의 목표와 성과만이 유일한 지상과제가 된 기관은 죽은 조직이다.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력이 생명이 문화 분야는 더욱 그렇다. 특히 그 목표와 성과가 ‘윗분’의 지적 쌓기에 열중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당초 프

로젝트의 의도는 ‘산으로’가고 만다. 민간 참여자들을 좌절케 하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광주시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조직은 미래가 없다. 광주시가 수억 원의 인건비를 지불하며 광주문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뭔가. 그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냐. 관행, 일방통행식 지시로 밀어붙이면 답이 없다.

단체장 ‘입’만 쳐다봐서야

6월이면 지방 선거가 치러진다.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좋은 기회다. 강력한 리더십은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걸 관장하며 리더의 ‘입’만 쳐다보게 하는 공무원들 위산하는 리더는 이제 사별이다.

유연한 사고와 말랑말랑한 힘으로 무장한 공무원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판을 벌여달라. 그리고 그 관에서 다양한 이들이 영웅한 상상력을 풀어놓게 해달라. ‘이류’와 ‘삼류’보다 못한 건 ‘아류다’라는 말이 있다. 딱 맞다. 관행만 좇다가는 남 뒤꽂무니 따르다 날 샌다.

한데, 물벼락을 맞을 각오로 줄을 타지는 못하더라도 시도를 하는 신참에게 화 내는 원숭이는 되지 않아야 할텐데. 음, 슬프게도 솔직히 점점 자신 없어지는 게 현실이다.

/mekim@kwangju.co.kr

은펜클럽



김병인 서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본 정계의 우경화와 군국주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말 야스쿠니 신사를 공공연하게 참배해 전세계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일제의 과거 침략의 역사를 부인하고 미화해서 많은 세계인들의 공분을 산지 한 달여 만인 지난 1월 28일에는 일본 정부가 2016년부터 중·고교생에게 독도와 조어도(일본명 센카쿠)를 자국 영토로 확정해 교육시키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시모무라 하루분 문화부학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고교 교과서 교사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조아도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다.

독도와 조어도

일본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일본과 외교적 전면전에 돌입했고, 중국 정부도 즉각 반발하고 나서서 일본 정부가 어떤 주장을 해도 조어도가 중국 땅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고 일본은 역사를 지시하고 실제 행동으로 과거의 잘못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독도는 자고이래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다.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 이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관리해 온 우리의 섬이다. 일본은 1905년에 일본 시마네현 현청 고시에 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 조치되었다. 일본은 처음에는 ‘무주지선점설’을 주장하다가 여러 가지 우리 측 자료가 나오자 ‘일본 고유 영토설’을 주장한다. 독도는 자고이래로 주인 있는 땅이고 일본 고유 영토라면 왜 1905년에야 일본 영토로 편입했는지 어떤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

조어도도 역사적으로 독도와 같은 일본 군국주의에 의한 침탈이라는 공통의 운명을 겪었다. 청일 전쟁 와중에 있던 1895년 1월 14일 무주지 선점설을 내세워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에 정식 편입했다. 하지만 조어도도 독도와 마찬가지로 주인이 있는 땅이

다. 중국 측 자료를 보면 명나라 초기 영락 원년(1403)에 출판된 ‘순풍상승(順風相送)’이란 책에 ‘조어서(釣魚嶼)’란 이름으로 실렸고, 1863년에 중국이 작성한 세계지도에는 중국 푸젠성에 부속한 조어대군도(釣魚臺群島)로 표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영국 해군이 1884년에 발견하고 무주지 인종 알고 ‘피너클아일랜드’라고 명명하고 영국 땅이라고 주장하다 주인이 있음을 알고 포기했다. 일본이 부르는 센카쿠 열도라는 명칭도 영국 해군이 지은 ‘피너클아일랜드(Pinnacle Islands·뾰족한 섬들)’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나 국제적 정황으로 봐서 중국 땅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가 독도를 지키려면 국제적으로는 일본 정계의 우경화와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조어도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겪는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동아시아의 많은 인민들은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의 부활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과 손잡고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 침략의 야욕을 막아야 한다. 동아시아 각국이 동시에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거나 자국 대사

의 동시 소환 같은 외교적 조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게도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한미일 3국의 동맹을 깨뜨려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시켜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독도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역사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승격하고 기념일에는 국가 장성이 참여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우리의 영토 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는 일본 측 입장을 대변하는 교회사 교과서 같은 것들은 폐기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강화하고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많은 전문가를 양성하여 미래에 대비하게 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임을 알려야 한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아베 총리와 반상(班常)의 나라 대한민국

며, 농업국가에서 변질된 자본주의 산업국가로 변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사회는 반상이 엄격히 구별되는 계급사회였다. 고려시대 ‘반적의 난’과 동학농민운동은 반상의 타파를 염두에 둔 계급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어느 사이 우리 사회에서 대학졸업장은 봉건시대에 반상을 갈라놓듯 계급을 가르는 신분층 비슷한 것이 된지 오래다.

세계 어느 나라나 귀족과 평민은 존재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폐자가 다시 살아 돌아올 패자부활이라는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고, 승자에게는 사회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존재하고 있다. 천박하게 발전해 버린 우리의 자본주의는 가진 자에 대한 중요성을 갖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승자독식·패자전멸의 사회구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제일 과제가 된 것이다.

보수는 반성을 하지 않고, 진보는 책임감이 없다는 현실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초등학교 과정에서 서당교육의 수신(修身) 대목을 잘 살리지 못해 오늘

날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국민 모두가 반상의 주인공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학계, 종교계, 정치계, 언론계 어느 곳이나 갑의 횡포가 만연해 가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온갖 악행을 마다하지 않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미래 지향적 의식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숲을 탐을 새로운 부대를 들고, 지도층이 나서야 할 때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에 따르는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아베총리의 할아버지이며, 일제 강점기 마지막 조선총독인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는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의 세월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왔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맥아더사령부가 아베 총독을 심문할 때 그는 “일본 식민정책은 한국인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이었었고, 한국인은 아직도 자신

을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독립된 정부 형태가 되면 당파싸움으로 다시 붕괴할 것”이라며 남북공동정부 수립을 적극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노부유키의 마지막 말은 비판과 분노에 앞서 동북아에서 우리나라가 임해야 할 현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치욕의 역사적 기저에 우리들의 분열과 이간질, 서로를 못 믿는 불신, 편 가르기, 극과 극을 달리는 반상의 사회구조 등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단체인 반상의 나라로는 선진국가·민주국가가 될 수 없으며, 세계로 나아가 수도 없다.

타협 없는 이기주의를 타파하는 격조 높은 국민성 교육, 새로운 가치 창조,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 황금만능의 사회로부터 건전한 정신문화를 공유하는 문화국민, 양반과 상민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박애의 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제 반상의 골레에서 벗어나 품격 높은 대한민국으로 거듭나 보자.

社說

전남 섬지역 식수난 근본적인 해법 찾아야

올 겨울 계속된 가뭄으로 전남 섬지역이 극심한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완도 등 일부 지역은 저수율이 10% 미만인어서 제한 급수까지 한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해마다 겨울가뭄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동안 불가항력적인 천재(天災)라고 치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소홀한 듯하다. 가장 심각한 곳은 거금도이며, 금일, 남도, 청산도, 노화·보길도도 식수난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최근 눈·비가 내리지 않은 고흡균 급산면, 완도군 금일읍 등 1개 읍과 4개 면의 저수율이 10%대에 머물고 있어 제한급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가장 심각한 곳은 거금도이며, 금일, 남도, 청산도, 노화·보길도도 식수난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군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신의면(기도·고평사도), 도초면(우이도) 장산면(백야도), 하의면(장재도·문병도) 등 4개면 6개 섬지역 주민 474명이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여수시 개도에서는 주민들이 지하수를 끌어 쓰며, 시에서 제공하는 생수를 마시고 있다고 한다.

전남 섬지역은 특성상 해수 유입 때문에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관정을 뚫어도 쉽게 말라붙어 이용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빗물에 의존하는 상수원의 저수율이 떨어지면 어김없이 식수난을 겪는 것이다. 배후에 단기처방으로 육지에서 물을 배에 실어 날라 공급하는 방법을 사용해왔지만 이런 땀집처방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차체에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해수 담수화시설은 항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큰 섬지역을 거점으로 시설을 하고, 주변 도서를 한데 묶어 식수를 공급한다면 물 부족문제는 해결이 된다. 예산 부족을 들어 미적거리고 있다가는 물 기근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 점차 늘어날 수도 있다.

고질화된 농협 선거비리 이대론 안된다

수차례의 금품 부정 선거로 비리의 낙인이 찍힌 서광주농협에서 또 다시 돈 선거가 터져 물의를 빚고 있다. 단위 농협에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이사 선거가 과열되면서 금품 수수라는 고질 병이 도진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직 이사가 재출마하면서 조합원에게 120만 원 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는 제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돈 봉투와 해당 조합원의 진술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10명의 이사 선출에 22명이 입후보하는 등 과열 양상에 비추어 수사가 진행되면 금품 제공 여부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합장도 아닌 이사 선거까지 ‘검은 돈’이 오가는 것은 무보수직이긴 하지만 조합원의 자격 심사는 물론 가입과 탈퇴 승낙, 사업승인과 예산집행 의결 등 권한이 막강하다는 데 있다. 이사 경쟁이 치열한 것도 이런 이유다.

서광주농협은 지난 2005년 이후 끊이지 않는 선거 비리로 홍역을 치렀다. 3차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 모두 금품을 돌려 구속됐는가 하면,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도 이사·대의원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출마자와 대의원 등 14명이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농·수협 조합장과 이사 선거를 둘러싼 탈·탈법행위가 고질화된 데는 무엇보다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소홀과 조합원의 그릇된 의식에 있다. 출마 후보자도 문제지만 농협본부 등 상급기관이 비리선거를 제어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방관한 탓이 크다. 유권자인 조합원 역시 금품을 받지 않는 데야 줄 리는 만무한 법이다.

지금 농촌은 백작간두에 서 있다. 농협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선거는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잘못된 선출은 조합의 부실로 이어지고, 그 명에는 조합원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無等鼓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이어가다 보면 문득 운명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귀 기울여야 하는 때가 언젠가 누구에게나 닥쳐온다.

눈·귀가 멀고 말조차 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는 스승 설리번과 함께 가슴 속 ‘또 다른 문(The other door)’을 열어젖

힘으로써 살 길을 찾아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혀버린 문을 오랫동안 바라보곤 하기에 새로 열린 문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중략)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 그리고 이웃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국의 작가 헬렌 니어링(Helen Nearing)도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쓴 책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에서 인생의 분기점을 문(door)에 비유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고 그 문은 다른 방, 다른 곳, 다른 사건으로 이어진다. 우리 삶에는 열리고 닫히

여 준 스승, 그리고 남편이 그들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죽음이 라는 ‘또 다른 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너무도 참담하다. 좌절과 고통을 끌어안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희망으로 향하는 또 다른 문’을 만들어주는 것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이웃일 것이다. 그런 이웃,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겨내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멘토로 자리 잡은 것은, 커다란 사랑과 희생을 보

또다른 문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논설주간 <b>申港樂</b>	편집국장 <b>奇賢鎔</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 1부 2200-661 문화 2부 2200-651	경영지원본부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 사업국 2200-541 (F A X 227-9600) (F A X 220-551)
편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9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